

우리 나라 命數法에 대한 小考(II)

창원대학교 응용수학과 金秉德

Abstract

We have studied the idealistic numeration which has been used in Chinese classics of Korea. The form is ④ of the <table 1> and we name it 'HA-SU numeration' in this thesis.

0. 緒言

命數法(numeration)이란 수를 적당한 무리로 나누어 간단한 말로써 조직적으로 이름지어 부르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 記數法(numeration system)에 있어서는 세계가 공통으로 아라비아 記數法(Arabic numeration)을 사용하고 있으나, 命數法은 나라에 따라 다양각색이다.

우리 나라 命數法은 漢數字에 근거하고, 漢數字는 絶對 記數法으로서 소리나는 대로 적기 때문에, 記數法이 곧 命數法이고, 命數法의 핵심은 數詞의 組織이다.

大數(自然數) 및 小數에 대한 우리 나라 命數法에서 실제로 사용된 數詞組織, 유래, 변천과정, 사용실례 등은 졸저([1], [2])에서 이미 언급하였는바, 大數에 대한 數詞組織으로 18세기 이전까지는 <表 1>의 ①, 19세기 이후로는 ③이 사용되고 있다.

本考에서는 算學에서 실제적으로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국어사전, 漢韓字典(玉篇), 經學 등에서 觀念的으로 언급된 <表 1>의 ④, ⑤와 같은 數詞組織과 특히 數詞 秭의 字義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下數 命數法'

一·十·百·千·萬...와 같이 10배마다 새로운 數詞로 바뀌어지는(以十遞進) 命數法을 '下數命數法(또는 以十遞進 命數法)'이라 할 수 있다. A.D. 550년경 중국 北周의 甄鸞이 徐岳이

<表 1> 大數의 數詞組織 (命數法)

| 數詞 | 수사 | ① | ② | ③ | ④ | ⑤ | 비고 |
|------|------|-------------------|------------------|------------------|------------------|-----------------|----|
| 一 | 일 | 1 | 1 | 1 | 1 | | |
| 十 | 십 | 10 | 10 | 10 | 10 | | |
| 百 | 백 | 10 ² | 10 ² | 10 ² | 10 ² | | |
| 千 | 천 | 10 ³ | 10 ³ | 10 ³ | 10 ³ | | |
| 萬 | 만 | 10 ⁴ | 10 ⁴ | 10 ⁴ | 10 ⁴ | | |
| 億 | 억 | 10 ⁸ | 10 ⁸ | 10 ⁸ | 10 ⁵ | | |
| 兆 | 조 | 10 ¹⁶ | 10 ¹² | 10 ¹² | 10 ⁶ | | |
| 京 | 경 | 10 ²⁴ | 10 ¹⁶ | 10 ¹⁶ | 10 ⁷ | | |
| 垓 | 해 | 10 ³² | 10 ²⁰ | 10 ²⁰ | 10 ⁸ | 10 ⁹ | |
| 秭 | 자 | 10 ⁴⁰ | 10 ²⁴ | 10 ²⁴ | 10 ⁹ | 10 ⁸ | |
| 穰 | 양 | 10 ⁴⁸ | 10 ²⁸ | 10 ²⁸ | 10 ¹⁰ | | 壤 |
| 溝 | 구 | 10 ⁵⁶ | 10 ³² | 10 ³² | 10 ¹¹ | | |
| 澗 | 간 | 10 ⁶⁴ | 10 ³⁶ | 10 ³⁶ | 10 ¹² | | |
| 正 | 정 | 10 ⁷² | 10 ⁴⁰ | 10 ⁴⁰ | 10 ¹³ | | |
| 載 | 재 | 10 ⁸⁰ | 10 ⁴⁴ | 10 ⁴⁴ | 10 ¹⁴ | | |
| 極 | 극 | 10 ⁸⁸ | 10 ⁴⁸ | 10 ⁴⁸ | 10 ¹⁵ | | |
| 恒河沙 | 항하사 | 10 ⁹⁶ | 10 ⁵⁶ | 10 ⁵² | | | |
| 阿僧祇 | 아승기 | 10 ¹⁰⁴ | 10 ⁶⁴ | 10 ⁵⁶ | | | |
| 那由他 | 나유타 | 10 ¹¹² | 10 ⁷² | 10 ⁶⁰ | | | |
| 不可思議 | 불가사의 | 10 ¹²⁰ | 10 ⁸⁰ | 10 ⁶⁴ | | | |
| 無量數 | 무량수 | 10 ¹²⁸ | 10 ⁸⁸ | 10 ⁸⁸ | | | |

※ 18세기 이전까지는 ①을, 19세기 이후는 ③을 사용하고 있다.

②는 이희승의 국어대사전[16]에서 제안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곤란하다.

④는 字典에서 數詞의 字義로 지금도 觀念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⑤는 잘못이다.

라는 가상적 인물을 내세우고 손수 註를 붙였으나 실은 甄鸞 자신의 저술이라는 數術記遺 [7]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黃帝爲法 數有十等 及其用也 乃有三焉. 十等者 億 兆 京 垓 秭 壤 溝 澗 正 載. 三等者 謂上中下也. 其下數者 十變之 若言十萬曰億 十億曰兆 十兆曰京也. 中數者 萬萬變之 若言萬萬曰億 萬萬億曰兆 萬萬兆曰京也. 上數者 數窮則變 若言萬萬曰億 億億曰兆 兆兆曰京也. ……下數淺短 計事則不盡 上數宏廓 世不可用 故其傳業惟以中數耳.¹⁾

數詞가 십십(十十)으로 변화하는 下數는 너무 작아서 셈하기에 부족하고, 제곱으로 변하는 上數는 수가 너무 크므로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므로 中數만이 전해지고 있는데, 그 中數가 바로 <表 1>의 ①과 같은 명수법이다.

‘下數 命數法’은 위와 같은 단점 때문에 비록 算學書에서는 用例를 찾을 수 없으나 <表 4>의 [15], [16], [16-1]에서 보다시피 觀念的으로는 사용되었고, 字典에서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다(<表 5> 참조).

※ 億의 ‘下數命數法’과 관련하여 흥미 있는 것은 由來야 어쨌든 慶南 密陽市와 慶北 淸道郡과의 경계에 차례대로 높이 순으로 연이어 있는 九萬山(785m)·億山(944m)·雲門山(1188m)·迦智山(1240m)의 명칭이다.

또 <三一獨立宣言書>의 원본에 ‘四億 支那人’이라 하지 않고 ‘四億萬 支那人’이라고 표기한 것은, 億이 ‘下數’의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고 萬萬의 의미로 사용됨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表 5>의 [53] 億 란 참조)

2. 詩經의 萬億及秭

經書에 나오는 數詞로는 주로 億·兆·秭인데, 이들은 모두 主訓이 數名이다. 兆는 書經(尙書) 및 禮記에서 ‘많은 백성’을 뜻하는 ‘兆民’의 형태로 많이 쓰이고 있다. 億은 詩經의 魏風 伐檀에 있는 ‘禾三百億’, 大雅 假樂에 있는 ‘子孫千億’ 등에서 ‘대단히 많다.’는 뜻으로 쓰이고 있다. 秭는 詩經 周頌의 豐年 및 載芣 두 곳에서 ‘(곡식이) 한없이 많이 (쌓여있다.)’는 뜻으로 쓰인 ‘萬億及秭’에서만 볼 수 있다.

詩經에 관한 朝鮮 시대 주요 문헌과 현재의 몇몇 저서에서 萬億及秭에 대한 번역 및 해설을 요약한 것이 <表 2>이다.

1) 五經算術[8]에도 위와 같은 내용이 있는 바, 정확한 것은 문헌[1] 참조

<表 2> 萬億及秭에 대한 번역 및 해설

| 문헌 | 萬億及秭의 번역 | 해 설 | |
|------|---------------------------|----------|------------|
| | | 億 | 秭 |
| [58] | 萬(만)이며 億(억)이며 및 秭(즈) 어늘 | | |
| [59] | | 십만, 만만 | 십억, 만억, 억垓 |
| [60] | | 십만 | 十兆(백억) |
| [61] | | 만만 | 억억 |
| [62] | 한없이 많이 | 만만 | 만억 |
| [63] | 만억에 더 만억 | 만만 | 억억 |
| [64] | 만으로 억으로 많아라 | | |
| [65] | 萬(만)이며 億(억)이며 秭(자)이거늘 | 만만, [십만] | 억억 |
| [67] | 헤아릴 수 없이 많은 | 만만 | 만억 |

※ [58]은 조선 宣祖의 명에 따라 지은 七書諺解의 하나로 詩經을 한글로 옮긴 책이다. 原文에 한글로 音義와 토를 달고 각 장 뒤에 번역을 붙였다. [59]는 조선 후기의 申緯이 詩經에 대한 역대의 주석과 고증자료를 모아 평생에 걸쳐 이룩한 대표작이다. 그는 古經學의 전문성을 중시했던, 조선의 독보적인 樸學者였다. [60]은 沈大允(1806-1872)이 朱子の 詩經集傳의 오류를 바르게 고쳐 五經의 뜻을 다시 후세에 밝히려는 의도로 저술한 것이다. [61]은 朱子の 詩集傳에 대한 상세한 해설서이다. [65]는 詩經과 朱子の 詩集傳에 대하여 토를 달고 역주한 것이다.

<表 2>에서 보다시피 詩經의 ‘萬億及字’의 文句는 우리 나라에서 여러 가지로 해설되고 있고, 또 秭에 대한 각기 다른 字義의 예로 인용되고 있는 바 그 실상은 다음과 같다.

- (1) 억의 억 배(億億): 문헌 [52], [55], [56]
- (2) 억의 만 배(萬億): 문헌 [43]
- (3) 억의 천 배(千億): 문헌 [44]

3. 字典의 字義로 사용되는 下數

字典에서 數詞에 대한 字義로는, 算學(數學)과는 달리, 下數를 사용하는 것이 많은데 이는 字典의 인용서로서 체계적인 算書보다는 經書나 문학서 등이 중시된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數詞 億·兆·京·垓·秭 등에 대한 해설은 중국 문헌[57]이나 우리 나라 문헌에서도 여러 가지로 설명되고 있으나, 그 근원은 數術記遺[7]나 風俗通(義)에 두고 있다. 風俗通은 後漢末의 應劭가 流俗의 잘못을 바로잡으려 편찬한 저서라고 하나, 宋나라 이후 10권의

로 축소되었다가 失傳되고, 命數法에 관한 것은 太平御覽[9], 廣韻[22]·[23], 重修玉篇[21], 說文解字注[19] 등에서 引用되고 있을 뿐이다.

風俗通의 引用句 類型과 出典 및 인용하는 標題字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0) 太平御覽[9] 〔藝部 數 (卷 750)

風俗通曰 十十謂之百 十百謂之千 十千謂之萬 十萬謂之億
十億謂之兆 十兆謂之經 十經謂之垓 十垓謂之捕
十捕謂之選 十選謂之載 十載謂之極

(11) 大漢韓辭典[52] ‘極’

[太平御覽 卷 750] 風俗通曰
十垓謂之補 十補謂之選 十選謂之載 十載謂之極

(20) 廣韻[22][23] ‘秭’ (垓와 秭의 순서가 <表1>의 ⑤와 같음)

風俗通云 千生萬 萬生億 億生兆 兆生京 京生秭 秭生垓 垓生壤
壤生溝 溝生澗 澗生正 正生載 載地不能載也

(30) 重修玉篇[21] ‘垓’

風俗通曰 十千曰萬 十萬曰億 十億曰兆 十兆曰經 十經曰垓

(31) 說文解字注[19] ‘垓’

風俗通, 千生萬 萬生億 億生兆 兆生經 經生垓

(40) 康熙字典[30] ‘垓’

風俗通, 十億曰兆 十兆曰京 十京曰垓

(41) 大言海[54] ‘京’

風俗通, 十億曰兆 十兆曰京 十京曰核 (核는 垓의 誤植인듯)

위에서 보다시피 風俗通의 引用句는 일정하지 않고, 특히 太平御覽은 부주의한 인용으로 原書에 없는 것도 인용된 사례가 많다고 하므로 風俗通은 신빙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下數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秭와 垓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것이다. 이에 관하여 중국의 字典, 韻書 중에서 우리나라에 영향이 많은 주요 문헌에 대하여 數詞에 관한 字義와 風俗通 인용문 유형 및 그 標題字를 요약·정리하면 <表 3>과 같다.

<表 3>

| | 億 [億] | 兆 | 京 [經] | 垓 [亥] | 秭 | 風俗通 引用 標題字-(類型) |
|--------------|------------------|------|------------|------------|----------------|--------------------|
| [18]. 說文解字 | [十萬] | | | | 萬億 | |
| [19]. 說文解字注 | [十萬] | (十億) | ([十兆]) | 十經 | 萬億 | 垓-(31) |
| [20]. 玉篇 | [十萬] | | ([十兆]) | 十經 | 萬億 | 垓-(30) |
| [21]. 重修玉篇 | [十萬] | (十億) | ([十兆]) | 十經 | 萬億 | 垓-(30) |
| [22]. 原本廣韻 | 十萬 | 十億 | (十兆) | (十秭) | 千億 | 秭-(20) |
| [23]. 重修廣韻 | 十萬 | 十億 | (十兆) | (十秭) | 千億 | 秭-(20) |
| [24]. 禮部韻略 | 十萬 | 十億 | | | 千億 | |
| [25]. 集韻 | [十萬] | 十億 | [十兆] | [十經] | 萬億 | |
| [26]. 古今韻會舉要 | 十萬 萬萬 | 十億 | 十兆 | 十京 | 萬億 | 垓-(30) 秭-(20) |
| [27]. 洪武正韻 | 十萬 | 十億 | ([十兆]) | 十經 | 十億 | 垓-(30) |
| [28]. 字彙 | 十萬 | 十億 | 十兆 [十兆] | 十經 | 十京 億億 | |
| [29]. 正字通 | 十萬 萬萬 | 十億 | 十兆 | 十京 | 億億 十億 | 垓-(40) |
| [30]. 康熙字典 | 十萬 [十萬] 萬萬 | 十億 | 十兆 [十兆] | 十京 [十經] | 萬億 億億 千億 | 垓-(40) 秭-(20) |

() 안은 다른 標題字에서 간접으로 언급된 내용임

※ [18]은 後漢의 許慎이 편찬한 最古의 字典이고, 이에 가장 뛰어난 주석을 붙인 것이 [19]이다. [20]과 [21]의 玉篇은 고구려 때 이미 우리나라에 들어와 한자학습의 기본서적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어 字書·字典의 대명사로 사용되었다. 廣韻[22]·[23]은 漢文字를 206韻으로 갈라 배열하고 글자마다 소리와 뜻을 풀이한 韻書로서 중국 中古音 연구의 기본자료가 될 뿐 아니라 이것을 丁度 등이 宋 仁宗의 칙명을 받아 대폭 수정 보완하고 異體字와 異讀을 널리 수록한 것이 集韻[25]이다. 集韻과 廣韻은 오늘날까지도 字典 편찬에서 反切의 기준이 되고 있다. [24]는 宋 丁度 등이 禮部의 科試에 응시하는 사람을 위하여 聲韻의 要略을 적은 것인데 [26]과 더불어 고려 중기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愛用된 韻書이다(문헌 [4], [5] 참조). [27]은 訓民正音 및 東國正韻 편찬의 기초가 되었다. [28]은 214 部首로 나누어 劃數에 의하여 글자를 찾는 최초의 字典이고, [29]는 [28]의 訓誥해석을 크게 보완하고 出典을 명시한 것인데 [28]과 함께 [30]의 底本이 된 字典이다.

1945년 이전의 우리 나라의 문헌에서 數詞의 字義를 요약하면 <表 4>와 같다.

<表 4>

| | 億 | 兆 | 京 | 垓[玆] | 秭 | 數詞의 相沖 |
|---------------------|----------------------|----------------|------------|------|----|----------------|
| [31]. 三韻通考 | 十萬 | 十億 | | | 千億 | |
| [32]. 訓蒙字會 | 十萬 | | | | | |
| [33]. 大東韻府群玉 | 十萬 | 十億 | | | | |
| [34]. 正音通釋 | 十萬 | 十億 | | | 千億 | |
| [35]. 三韻聲彙 | 十萬 | 十億 | | | 千億 | |
| [36]. 奎章全韻 | 十萬 | 十億 | 十兆 | | 千億 | |
| [37]. 全韻玉篇 | 十萬 | 十億 | 十兆 | 十京 | 千億 | 垓와 秭 |
| [38]. 字典釋要(1909) | 十萬 | 十億 | 十兆 | | 千億 | |
| [39]. 新字典(1915) | 十萬 萬萬 | 十億 | 千萬 (十兆) | 十京 | 千億 | 垓와 秭 |
| [40]. 康熙大玉篇 | 萬萬 | 十億 | 十兆 | [百兆] | 千億 | 億과 兆이상 玆와 秭 |
| [15]. 朝鮮語辭典 | 十萬 萬萬 | | | | | |
| [16]. 朝鮮語辭典 | 萬萬 十萬 | 十億 萬億 億億 | | | | |
| [16-1]. 우리말큰사전 | 萬萬 十萬 | 十億 | | | | |
| [54]. 大言海 (日本字典) | 萬萬 十萬 百萬 千萬 | 十億 | 十兆 | 十京 | | |

※ [31]은 [24]를 우리 나라 사람이 이용하기 쉽도록 개편한 우리 나라 最古의 韻書이다. [32]는 비록 訓蒙의 書이나 우리 나라 字典의 효시라 할 수 있고, [33]은 일종의 백과사전이며, [34]는 당시의 우리 나라 및 중국 한자음을 한글로 表音한 韻書이고, [35]는 漢字를 四聲으로 나누어 한글 자모의 순서에 따라 我音 중심으로 우리 나라 및 중국의 表音을 붙인 韻書이다. [36]은 한글 字母 순서에 따라 漢字音을 분류·배열한 획기적 韻書이고, [37]은 [36]보다 더 자상하면서도 한글로 음을 표시한 가장 권위 있는 字典으로 그 字音과 字義는 아직도 字典 편찬의 규범적 구실을 하고 있다. [38]은 音·義를 모두 한글로 표기하여 근대적 색채를 띠게 한 최초의 字典이며, [39]는

우리 나라 명수법에 관한 소고(II)

[37]의 미비한 점을 보충하여 실용에 맞도록 한 것이다. [15], [16]은 일제 시대에 편찬된 국어사전이고, [16]-1은 [16]을 광복 후에 수정 출판한 것이다. [54]는 비록 일본의 字典이지만, [55]를 위시하여 우리 나라 字典에 여러 가지로(특히 風俗通 인용의 誤植까지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된다.

광복 이후 쉽게 접할 수 있는 玉篇·字典에서 數詞의 字義를 요약한 것이 <表 5>이다.

<表 5>

| | 億 <옛날> | 兆 | 京[經] | 垓[亥] | 秭 | 數詞의 相沖 |
|----------------------------|------------|----------|----------|----------|----------------------------|-------------|
| [41]. 明文新玉篇 | 萬萬 | 十億 | 十兆 | [百兆] | 千億 | 垓와 秭 |
| [42]. 最新弘字玉篇 | 萬萬 | 億億 | 十兆 | [百兆] | 千億 | 兆, 垓와 秭 |
| [43]. 漢韓大字典 | 萬萬 十萬 | 十億 | 十兆 | 十京 | 萬億 | |
| [44]. 漢字大典 | 萬萬 十萬 | 十億 | 十兆 | 十京 | 千億 | 垓와 秭 |
| [45]. 新字典 | 十萬 萬萬 | 十億 | 十兆 | 十京 | | |
| [46]. 玄文大玉篇 | 萬萬 | 十億 | 十兆 | [百兆] | 千億 | 垓와 秭 |
| [47]. 漢韓大辭典 [48]. 漢韓中辭典 | 萬萬 <십만> | 萬億 | 萬兆 | 千億 億京 | 萬億 億垓 | 京以下와 垓以上 |
| [49]. 三星大玉篇 | 萬萬 | 十億 | | [百兆] | 千億 | 垓와 秭 |
| [50]. 韓國漢字語辭典 | 억 | 萬億 | | | 千億 | |
| [51]. 最新 大玉篇 | 萬萬 | 十億 | 十兆 | [百兆] | 千億 | 垓와 秭 |
| [52]. 大漢韓辭典 | 萬萬 <십만> | 十億 萬億 | 十兆 萬兆 | 十京 萬京 | 十億 千億 萬億 億億 億垓 | |
| [53]. 活用玉篇 | 억 (億萬)) | 십억 | | | 만억 | |

이상에서 보다시피 대한제국 말기에 발행된 池錫永의 字典釋要(1909)[38] 이전의 字典은 모두 ‘下數命數法’을 사용하였고, <表 5>에서 보다시피 광복 이후에 발행된 字典부터는 億의 字義로 현행처럼 萬萬(<表 1>의 ㉓과 같음)을 사용하나, 兆 이상은 오늘날까지도 ‘下數

命數法'과 <表 1>의 ① 및 ③이 混在되어 있다. 따라서 數詞에 대한 字義가 非體系的인데, 특히 垓(垓 및 女亥)와 秭의 字義가 相沖하는 것이 많다. 中國에서 秭는 數詞로서의 字義가 다양하여 <表 5>의 大漢韓辭典[52]에 있는 5가지 字義 외에 <表 1>의 ③과 같은 '萬垓'의 字義도 추가되고 그 각각에 대한 根據文獻도 존재한다.

우리 나라에서는 고려 光宗 때부터 科擧가 시행되어 漢詩·漢文이 일반적인 교양이 되자 韻書가 널리 이용되었다. 특히 科場에서 필요한 廣韻 계통의 禮部韻略[24]과 그것을 우리나라 사람이 쓰기 편하도록 개편한 三韻通考[31]가 重用되었다. 그 후의 正音通釋[34], 三韻聲彙[35]는 三韻通考의 계통에 속하는 것으로(姜信沆의 [4]·[5] 참조), 이들 네 개의 韻書는 모두 秭의 字義로서 '千億'을 쓰고 있다. 이것은 최고 권위의 正祖命撰 奎章全韻[36]과 全韻玉篇[37]에서 다시 확인된다. 그 후 音·義를 모두 한글로 표기한 최초의 근대적 옥편인 字典釋要[38]에서 '천억자'로 訓·음이 고정되었다고 추정된다. 이것은 근원적으로 風俗通을 인용한 重修廣韻[23]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廣韻을 더 補完한 集韻[25]에서는 風俗通을 인용하지 않고, 秭의 字義로 '萬億'을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表5>에서 보드시피 최근에 나오는 字典에서는 秭의 字義를 '만억자'로 표기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다([43], [47], [48], [53]).

詩經의 '萬億及秭'에 있는 '秭'의 字義로서 어느 것이 더 적합한지 여기서 함부로 速斷할 것이 못 되지만, 漢字 字典에 쓰는 字義로는 '천억자'보다 '만억자'가 더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數學에서 확인된 <表 1>의 ①·③과 상응하는 '下數命數法'이므로 垓(垓 및 女亥)와 相沖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表 3>의 문헌 [18], [19], [20], [21], [25], [26]과도 일치한다.

4. 結語

十倍마다 數詞가 바뀌는 소위 '下數命數法'은 대한제국 말기까지 觀念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수를 표기해야 하는 數學(算學)에서는 그 用例를 찾을 수 없다. 다만 字典에서 數詞에 대한 字義 표기로 지금도 사용되고 있으며, 이때 秭의 字義로 '千億'을 사용하게 되었다. 이것은 조선 世宗 연간에 간행된 三韻通考와 그 후의 正音通釋, 三韻聲彙 등을 거쳐 正祖命撰의 奎章全韻과 全韻玉篇에서 확인되고, 池錫永의 字典釋要에서 처음으로 '천억자'로 訓·음이 고정되었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字典에서 '秭'의 字義로는 '천억자'보다 '만억자'가 더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만억자'는 數學의 命數法(<表 1>의 ③)과 相通하며, 또한 最古의 字典인 說文解字, 字典의 대명사인 玉篇, 그리고 字典 편찬에서 反切의 기준이 되는 集韻(宋 丁度 等 奉敕纂)의 字義와도 일치하기 때문이다.

참고 문헌

1. 金秉德, “우리 나라 命數法에 대한 小考,” 昌原大學敎 基礎科學研究所 論文集, 제6집 (1994), pp. 9-13.
2. 金秉德, “우리 나라 命數法에 대한 小考(I),” 韓國數學史學會誌, 제8권 제1호(1995), pp. 35-40.
3. 동아일보, “無量數-실제 數는 얼마일까,” 1996년 3월 23일자 29면 과학란.
4. 姜信沆, “韓國韻書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1),” 成大文學 14(1969).
5. 姜信沆, “韓國韻書研究 ②,” 成大文學 15·16(1970),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회.
6. 晉 劉徽 注, 唐 李淳風 注釋, 九章算術, 景印文淵閣四庫全書 797冊, 臺灣商務印書館, 臺北, pp. 1-125.
7. 漢 徐岳 撰, 北周 甄鸞 注, 數術記遺, 四庫全書 797冊, pp. 161-171.
8. 北周 甄鸞 撰, 唐 李淳風 注, 五經算術, 四庫全書 797冊, pp. 193-225.
9. 宋 李昉 等, 太平御覽, 工藝部 數(卷 750), 四庫全書 899冊, pp. 637-640.
10. 崔錫鼎, 九數略, 韓國科學古典叢書 3, 誠信女子大學校 出版部.
11. 黃胤錫, 算學入門, 理數新編下 卷21-22, 韓國學古典叢書, 亞細亞文化社, 1975.
12. 清 康熙帝, 數理精蘊, 四庫全書 799冊.
13. 李尙燦, 借根方蒙求.
14. 南秉吉, 算學正義.
15. 朝鮮總督府, 朝鮮語辭典, 1920, 亞細亞文化社 影印, 1975.
16. 文世榮, 朝鮮語辭典, 永昌書館, 1936.
- 16-1. 文世榮, 우리말 큰사전, 三文社, 1954.
17. 이희승, 국어대사전, 94전면개정, 민중서림, 1994.
18. 漢 許慎 撰(100), 宋 徐鉉 增釋, 說文解字, 四庫全書 223冊, pp. 63-384.
19. 漢 許慎 撰, 清 段玉裁 注, 說文解字注, 古籍出版社, 上海, 1989
20. 梁 顧野王 撰(543), 唐 孫強 增補(674), 宋 陳彭年 等 重修(1013), 玉篇, 大廣益會 玉篇.
21. 梁 顧野王 撰(543), 唐 孫強 增補(674), 宋 陳彭年 等 重修, 重修玉篇, 四庫全書 224冊, pp. 1-241.
22. 原本廣韻, 四庫全書 236冊 pp.1-221.
23. 宋 陳彭年·丘雍 等, 奉敕撰 (1008), 重修廣韻, 四庫全書 236冊, pp. 223-432.
24. 宋 丁度 等, 禮部韻略, 奎章閣 圖書.
25. 宋 丁度 等 奉敕纂(1039), 集韻, 四庫全書 236冊 pp. 433-779.
26. 元 熊忠(1297), 古今韻會舉要, 亞細亞文化社 影印, 1975.
27. 明 樂韶鳳·宋濂(1374), 原本 洪武正韻, 韓國學研究院 影印, 1987.
28. 明 梅膺祚, 字彙(1615), 字典彙編 14, 國際文化出版公司, 北京, 1993.
29. 明末 張自列, 正字通, 奎章閣 圖書.

30. 張玉書 等, 康熙字典(1716), 字典彙編 15·16, 國際文化出版公司, 北京, 1993.
- 30-1. 高樹藩, 重修, 新修 康熙字典, 啓業書局印行.
31. 三韻通考(조선 세종때), 奎章閣 圖書.
32. 崔世珍, 訓蒙字會, 1527.
33. 權文海, 大東韻府群玉(朝鮮 宣祖 때 완성, 1798년에 초판).
34. 朴性源, 華東正音通釋韻考(또는 正音通釋)(1747), 규장각 도서.
35. 洪啓禧, 三韻聲彙(1751), 奎章閣 圖書.
36. 正組命撰(1796), 奎章全韻, 韓國學研究院 影印, 1987.
37. 正組命撰(1800년경), 全韻玉篇.
38. 池錫永, 字典釋要, 滙東書館, 1909, 亞細亞文化社 影印, 1975.
39. 朝鮮 光文會, 新字典, 新文館, 1915.
40. 春園 著(1915), 柳正基 監修, 康熙字典大玉篇, 金星文化社, 1990.
41. 金赫濟, 修正增補 明文新玉篇, 明文堂, 1952(초), 1983(33판).
42. 最新弘字玉篇, 弘字出版社, 1960.
 修正增補 最新弘字玉篇, 民衆書林, 1994 초판, 1996 초판 10쇄.
 (위의 두 책은 같은 내용임)
43. 李相殷, 漢韓大字典, 民衆書林, 1966(初), 1995(29刷).
44. 李家源, 張三植, 詳解 漢字大典, 裕庚出版社, 1973.
45. 李家源·金宇烈 監修, 新字典, 大榮出版社, 1973.
46. 尹善亮, 玄文大玉篇, 玄文社, 1982.
47. 李家源 외 監修, 漢韓大辭典, 東亞出版社, 1982.
48. 李家源, 任昌淳 監修, 漢韓中辭典, 東亞出版社, 1987.
49. 尹善亮, 三星大玉篇, 三星文化社, 1992.
50. 檀國大學校 東洋學研究所, 韓國漢字語辭典(全4卷), 檀國大 出版部, 1992-1996.
51. 閔濟 감수, 最新 大玉篇, 行法社, 1996.
52. 大漢韓辭典, 教學社, 1998.
53. 現代中國學術研究院, 컴퓨터 活用玉篇, 民聲社, 1992(初), 1999(9판 1쇄).
54. 大槻文彦, 大言海, 富山房, 東京, 1939, (言海: 1891年 出版).
55. 諸橋轍次, 大漢和辭典 修訂版, 大修館書店, 東京, 1984.
56. 瑞安林尹, 漢文大辭典(全 20冊), 臺北, 1962, 景仁文化社 影印, 1981.
57. 清·嘉慶 20年(1815) 重刊 宋本, 十三經注疏 附校勘記 (全8冊), 中文出版社.
58. 詩經諺解(1558), 1601년 再刊行, 奎章閣 圖書.
59. 申綽, 詩次故, 1814, 韓國經學資料集成(76, 77), 成均館大學校 大東文化研究院, 1995.
60. 沈大允, 詩經集傳辨正, 1859, 韓國經學資料集成(82).
61. 朴文鎬, 詩集傳 詳說 (壺山集), 1904, 韓國經學資料集成(85).
62. 金學圭, 詩經, 明文堂, 1971.

63. 李元燮, 詩經, 玄岩社, 1972.
64. 李家源의, 詩經新譯, 청아출판사, 1992.
65. 成百曉 譯註, 詩經集傳(上, 下), 傳統文化研究所, 1996.
66. 李濱 著 崔錫起 譯註, 星湖 詩經彙書, 와우출판사, 1996.
67. 이기석 · 한백우 譯解, 詩經, 흥신문화사, 1997.